

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, 깨끗한 농촌환경 만들기 환경 캠페인

김상준기자 | 승인 2025.06.22 17:08 | 10면

지사-수질보전협의회-합천농협 합동 환경캠페인 실시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합천지사는 지난 19일 대양면 무곡리 위치한 무곡저수지에서 에코캠페인 '물愛GREEN(물애그린)'행사를 펼쳤다. /합천군

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(본부장 손영식) 합천지사(지사장 김동원)는 지난 19일 대양면 무곡리 위치한 무곡저수지에서 합천농협,수질환경보전회 합동으로 농촌환경 개선 및 시설물 친환경 관리를 위한 에코캠페인 '물愛GREEN(물애그린)'행사를 펼쳤다.

이번 캠페인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해 합천군 환경위생과, 환경단체, 지역대표로 구성된 수질환경보전회 및 합천군지부 농협직원, 농가 주민 등이 함께 참여했다.

캠페인에 앞서, 공사 소회의실에서 합천군 관계자 및 전문가 및 지역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천지역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과 환경보전에 대한 설명에 이어, 수질환경보전회 운영 방향과 수질개선을 위한 주체별 역할 분담 및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
수질환경보전회는 농업용수 수질보전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 뿐만 아니라 수시

로 공사와 서로 소통하며 수질보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.

‘물 愛 GREEN(물애그린)’ 환경캠페인은 농촌환경 개선 및 농업기반시설의 친환경 관리를 목표로 하여 용·배수로 등의 영농폐기물 정화 및 지역민 대상 영농폐기물의 친환경 처리를 위한 교육 등을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.

한편 김동원 지사장은 “에코캠페인 ‘물 愛 GREEN’ 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자발적 환경개선 활동을 유도하고, 탄소중립 ESG경영 실천 및 깨끗한 농촌환경 만들기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 김상준기자

저작권자 ©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상준기자